

##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6. 19.(월) 06:00 ~ 23:00
- 상담건수<sup>1)</sup>: 1,076건

## II. 주요의견 내용

### ○ 출연자 섭외 호평

- 프로그램명 : 「열린음악회」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 방송일시 : 2023. 6. 18.(일) 1TV (17:40-19:00)

이날 방송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됐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 출연진 정보를 파악했는데, 출연진 구성이 좋아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여러 장르의 가수들을 다양하게 섭외해주어 감사하다.

### ○ 방송 제언(262명)

- 프로그램명 : 「가요대축제」

K팝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가요대축제」를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공영방송의 연말시상식을 왜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시기라 더욱 당황스럽다. 일본 개최를 철회해주기 바란다.

##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18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2023 가요대축제’ 관련(동의수 1,661) / 청원 성사 : KBS는 공영방송사 아닌가요? 연말 무대를 일본에서 진행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철회하시죠.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 IV. 일일 상담내용

##### 1. 상담실적 : 총 1,076건

######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sup>2)</sup>	계
395	340	1	-	340	1,076

######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31	472	20	-	-	153	1,076

######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421	655	-	1,076

######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838	2	88	148	1,076

시청자 의견	문 의
<p><b>【편 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저널 그날」</li> <li>- 결방 제언</li> </ul> <p><b>【시사·교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li> <li>- 방송 제언</li> </ul> <p><b>【연예·오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노래자랑」</li> <li>- 진행자 섭외 제언</li> <li>○ 「열린음악회」</li> <li>- 출연자 섭외 호평</li> <li>○ 「가요대축제」</li> <li>- 방송 제언</li> </ul> <p><b>【드라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li> <li>- 극본 제언</li> </ul> <p><b>【라디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월따라 노래따라」</li> <li>- 방송 호평</li> </ul>	<p><b>【방 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시 내고향」</li> <li>- ‘새우젓 문의’ 연락처 문의 56건</li> <li>○ 「열린음악회」</li> <li>- ‘방청’ 문의 14건</li> <li>○ 「아침마당」</li> <li>- ‘출연신청’ 문의 12건</li> <li>○ 「KBS 뉴스광장」</li> <li>- ‘중고, 물물교환’ 연락처 문의 10건</li> <li>○ 「가요무대」</li> <li>- ‘방청’ 문의 10건</li> </ul> <p><b>【기 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시청」 문의 1건</li> <li>○ 「디지털 전환」 문의 1건</li> </ul> <p><b>【경 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문의 48건</li> <li>○ 「수신료」 문의 1건</li> <li>○ 「프로그램 구입」 문의 22건</li> <li>○ 「전화교환」 문의 15건</li> <li>○ 「견학」 문의 2건</li> </ul> <p><b>【기 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 문의사항 포함 148건</li> </ul>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 편 성 ]	
결방 제언	<p>○ 「역사저널 그날」 (8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6. 18.(일) 1TV (21:40-22:30)</li> <li>-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다뤄주어 매주 기다렸다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매우 속상했다. 가급적이면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편성을 지켜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 시사 · 교양 ]	
방송 제언	<p>○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1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6. 18.(일) 1TV (21:40-23:00)</li> <li>- KBS가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살펴보는 특별기획을 긴급 편성했다. 주제는 ‘수신료 분리 징수’였는데, 시청자들이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이유는 KBS 시사 프로그램들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제동 씨, 주진우 씨 등에게 고액의 출연료가 지급되는 점에 불편함을 느낀다. 수신료는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납부하게끔 되어야 한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 연예 · 오락 ]	
진행자 섭외 제언	<p>○ 「전국노래자랑」 (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6. 18.(일) 1TV (12:10-13:30)</li> <li>- 진행자가 바뀐 후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일이 줄었다. 김신영 씨가 프로그램의 재미를 최대한으로 살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송해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연륜 있는 진행자로 교체해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출연자 섭외 호평	<p>○ 「열린음악회」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6. 18.(일) 1TV (17:40-19:00)</li> <li>- 이날 방송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됐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 출연진 정보를 파악했는데, 출연진 구성이 좋아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여러 장르의 가수들을 다양하게 섭외해주어 감사하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방송 제언	<p>○ 「가요대축제」 (26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팝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가요대축제」를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공영방송의 연말시상식을 왜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시기라 더욱 당황스럽다. 일본 개최를 철회해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김** 외</p>
[ 드라마 ]	
극본 제언	<p>○ 주말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6. 18.(일) 2TV (20:05-21:25)</li> <li>- 오연두(백진희 분)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채 공태경(안재현 분)과 가짜 부부 행세를 하고 있다. 모든 가족을 속이는 것도 보기 불편한데, 진짜 아기 아빠 김준하(정의제 분)가 나타났다음에도 김준하까지 속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오연두와 공태경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세진(차주영 분) 역할도 공감이 안 된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 라디오 ]	
방송 호평	<p>○ 「세월따라 노래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6. 18.(일) 한민족1 (04:00-05:00)</li> <li>- 부산의 애청자이다. 매일 새벽 방송을 잘 듣고 있다. 평소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때 기사님들에게 추천할 정도로 해당 방송을 아끼고 좋아한다. 늘 좋은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행자와 제작진에게 감사드린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